신북방정책 실현을 위한 한·몽 경제협력 방안

G. Munkhnasan(한국외국어대학교)

1. 서론
2. 몽골의 경제동향과 대외경제협력 현황
3. 한·몽 경제협력 현황
4. 한·몽 경제협력 방안
5. 결론

1. 서론

한국은 신북방정책(New Northern Policy)을 추진하고 북방국가들과 호혜적 경제·안보 협력을 시행하고 있는데, 북방경제협력 대상 국가 중 하나가 몽골이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한·몽 경제협력현황을 분석하고, 한국의 신북방정책의 범위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의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한·몽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2016년 이후에 발표된 국내외 논문과 연구 18개 정도를 살펴보았는데, 그 중 주요연구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박지원・이재영・박정호 외(2016)는 단기적으로 기술인력 양성사업 및 산업현대화 정책 컨설팅사업, 인적 네트워크 구축사업, 중장기적으로는 ICT와 결합한 친환경 농장 및 육가공 공장 건설사업, 패션브랜드 개발사업, 중소규모 공단 건설사업,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댐 및 발전소 건설사업 등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한 한·몽 경제협력의 새로운 차별성을 지닌 맞춤형 산업협력, 한국과 몽골의 공통수요를 반영한 협력방안,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경쟁국가와 차별화된 협력방안 등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재영・권가원(2016)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몽골의 전략적 가치를 제시하고, 유망 협력분야로 교통·물류 인프라, 광물자원 개발 및 가공 부문, 건설 분야, 플랜트 분야를 들었다. 한·몽 전략적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전략과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는 것, 상호 사증면제협정,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을 통해 양국 간 협력강화, 고위급의 인적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고, 가칭 '한·몽 공동연구센터'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이재영(2016)은 양국 간 부문은 광업, 교통 인프라, 농업 및 축산업, 관광산업, 금융업 분야라고 판단하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희승(2016)은 유라시아 교통물류통합을 위한 한·몽 간 교통인프라 협력을 연구하고

동몽골 철도를 나진항과 연계하는 양자 및 다자간 협력사업, 두만강 지역에서 국제물류단지사업 등을 제시했다.

김보라(2018)는 몽골 신경제정책 방향으로 보면 농업지대, 산업화, 투자의 경제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몽골 농업지대들에 대한 직접투자, 아니면 농업 기계장비 공급, 농업기술도입 방법에 의한 협력, 21개 아이막 100개 공장사업에 대한 직접투자, 민관협력, 차관과 원조형태로의 참여, '몽골 투자 프로그램(2018-2021)'에 포함된 대규모 사업들에의 참여를 제언했다.

이 연구의 한·몽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국내연구들과 차별성은 한국의 신북방정책의 "9-BRIDGE"인 '가스관,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농업, 수산업, 산업단지'라는 총 9가지의 분야로 분석하는데 있다. 또한 신북방정책과 몽골의 경제정책 연계성을 살펴보고 상호보완적 맞춤형 협력인 한·몽간 "수출·인프라 중심 경제협력" 전략모델을 제안하는 점에서도 차별성을 갖는다.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본 연구에서는 우선 몽골의 경제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경제전망을 제시했다. 몽골 경제정책을 대외경제정책과 현재 실행하는 주요 정책으로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몽골과 경제협력을 교역, 투자 부분으로 살펴보고, 선행연구에서 연구한 기간 이후로 나타난 변화를 제시했다. 한·몽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의 신북방정책의 "9-BRIDGE"를 전략 분야별로 살펴보고, 협력 잠재력과 가능성을 5점으로 하여 평가했다. 이에 기초하여 한·몽 간 "수출·인프라 중심 경제협력" 전략을 제안했다.

본 연구의 제1장에서는 선행연구검토와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제2장에서는 몽골의 경제현황과 전망, 대외경제정책, 몽골의 주요 국가들과의 경제협력현황 등을 분석했다. 제3장에서 한·몽 경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제4장에서는 신북방정책 분야에서 한·몽 경제협력방안을 제시하고, 마지막 제5장에서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몽골의 경제동향과 대외경제협력 현황

몽골의 경제현황과 전망

몽골은 2000년대부터 광업중심으로 고도경제성장이 이루어졌으며, 경제성장률은 2011년 17.5%, 2012년 12.4%, 2013년 11.7%에 달했다. 그러나 몽골의 광물 최대수출국인 중국의 경기둔화로 인한 수출감소, 외국인직접투자 급감, 재정적자심화, 국채상환 문제,[1] 환율불안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2015년 2.3%, 2016년 1.2%로 급격히 둔화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2017년부터 몽골정부는 경제위기를 회복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55억 달러의 구제금융 패키지에 대해서 합의하고, IMF는 확대신용공여(EFF, Extended Fund Facility) 4억 3,430만 달러의 기금을 지급하게 되었다.[2] 몽골은 IMF

1) 2017년에 만기 5억 8,000만 달러 규모의 국채를 상환했다.

2) 상환기간 10년을 조건으로 3년 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한국과 일본은 몽골의 재정과 인프라 프로젝트 지원으로 30억 달러를 추가로 제공하고, 몽골중앙은행은 중국인민은행과의 별

프로그램 도입에 따라 저축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부과, 일부 수입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상,[3] 사회보험료(연금) 인상,[4] 개인소득세 인상 등의 조세수입 확대정책, 정년연장, 아동지원금 대상축소, 공무원 임금동결, 공기업 최고경영자 임금감소 등의 재정지출 축소정책을 실행했다. 이들 조치를 시행한 결과와 광물 수출 회복, 외환보유고 증가, 환율 안정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2017년에 5.1%에 달했으며, 현재 몽골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표1 참고).

표 1.몽골의 최근 경제동향

	단위	2013	2014	2015	2016	2017년
실질GDP증가율	%	11.6	7.9	2.4	1.2	5.1
명목 GDP	십억달러	12.6	12.2	11.7	11	11.1
일인당 GDP*	달러	4365	4168	4218	3854	3779
GDP대비총투자	%	53.2	35.2	26.4	29.4	37.3
외국인 직접 투자**	억달러	32.5	19.9	13.9	14.9	20.8
외환보유고**	억달러	22.5	16.5	13.2	13.0	14.9
총 외채	억달러	190.0	209.4	216.0	246.2	274.9
무역 수지	억달러	−13.2	9.9	11.8	13.4	14.9
수출	억달러	42.6	57.7	46.2	48.0	58.3
광물 수출	억달러	40.5	47.6	41.0	40.0	51.6
비 광물 수출	억달러	2.2	1.0	5.2	8.1	6.7
수입	억달러	55.9	47.8	34.4	34.7	43.5
평균환율	투그릭/달러	1525	1818	1996	2490	2427
실업률	%	7.9	7.9	8.0	7.9	8.0
총인구	백만 명	2.8	2.9	3.0	3.1	3.2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018), IMF, Country Report Mongolia(2017), 몽골은행(2018), 몽골국통계청. 몽골국 통계연보 (2017, 2018)에서 필자 작성

*몽골국통계청, 몽골국 통계연보(2017, 2018)

**몽골은행, 외국인직접투자 통계 2010−2018, 국가 외환보유고 통계 2006−2018

몽골의 주요 거시경제 목표인 국가예산의 적자축소 및 외환보유고 증가와 같은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 2018년 5월 18일에 IMF가 몽골에서 실행하고 있는 확대신용공여 프로그램에 대한 4번째 평가에 따르면, “프로그램 실행 결과 거시경제지표는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모든 목표량이 충족되었다. 또한 몽골 국가예산은 2018년 1분기에 기대치를 초과했으며 수익은 21% 증가했고, 상기 기간 동안 외환보유액은 2억 달러로

도 협상을 통해 약 21억 달러의 통화 스와프도 최소 3년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3) 승용차, 휘발유, 주류, 담배 등. 요컨대, 자동차 생산연도에 따라 특별 소비세는 소형차 3~15%, 실린더 용량이 4501㎤ 이상인 중대형차 40~250% 인상하고, 담배와 주류 특별소비세는 2018년에 10%, 2019년과 2020년에는 각 5%로 인상하고, 5%인 담배 관세를 30%까지 인상하고, 연료 특별소비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4) 사회보험료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로 인상하기로 했다.

증가했다"라고 평가했다[IMF(2018)].

2018년 현재 몽골 경제성장률은 6.4%[5]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개발은행의 예측치인 3,8%, 국제통화기금의 예측치인 5%보다 높은 수준이다. 2018년 9월 기준으로 몽골의 경제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6]

즉 실업률은 7.5%, 인플레율은 5.7%로 전년대비 하락했으며, 달러 대비 투르릭(MNT) 환율은 2503.31 MNT로 전년 대비 2.0 %, 전월 대비 1.6 % 약화되었다. 몽골 정부예산은 2017년 9월 기준으로 7379.0억 MNT 적자를 보였던 반면, 2018년 9월에는 2417.0억 MNT 흑자로 전환되었다. 총산업생산은 광산업 생산량 증가에 따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조 MNT(18.8%) 증가하여 11조 2천억 MNT에 달했다. 그 중 석탄 산업생산은 8,585억 MNT로 46.5%, 금속광석생산은 1,693억 MNT로 3.9% 증가했다.

대외교역은 총96억 달러, 수출은 56억 달러, 수입은 44억 달러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수출증가 요인으로는 광물자원과 섬유제품, 수입증가 요인으로는 디젤연료, 기계장비, 기구 및 부품, 차량 및 그 부속품, 비금속제품 수입 등이 큰 영양을 미쳤다. 전체 수출의 95.5%는 광물제품, 섬유제품, 보석, 금속제품이 차지한 반면, 수입의 경우 66.8%를 광물제품, 기계 및 전자제품, 차량 및 부품이 차지하여 대외교역 구조에서의 변화는 없었다.

국제금융기구에 따르면[IMF(2018)], 몽골 경제는 2019-2023년에 5%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국제금융기구가 몽골에서 시행하고 있는 확대신용공여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2019년에는 몽골 GDP 성장률이 8%대에 진입하고, 외환보유고가 38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윤지현(2017)].

표 2. 몽골 경제전망

	단위	2019	2020	2021	2022	2023
실질GDP증가율	%	6	4.8	5	5.2	5.9
명목 GDP	억달러	137	150	166	188	210
GDP 대비 총투자	%	43.0	43.7	44.3	44.3	44.5
무역 수지	억달러	12.6	11.8	15.2	20.3	28.6
수출	억달러	66.3	66.2	71.6	77.5	89.2
광물수출	억달러	59.2	59.2	64.3	69.9	81.2
비광물수출	억달러	7.1	7.1	7.3	7.6	8.0
수입	억달러	53.7	54.4	56.4	57.2	60.6
실업률	%	7.9	8.0	8.0	8.0	8.0
총인구	백만 명	3.1	3.2	3.2	3.3	3.4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018), IMF, Country Report Mongolia(2018)

현재 몽골의 광물수출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서 경제회복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또한 몽골의 대외무역에서 광물 수출이 증가하는 반면에 비(非)광물 수출

5) Монгол улсын үндэсний статистикийн хороо[몽골국통계청], https://www.nso.mn/(2018.11.16).

6) Монгол улсын үндэсний статистикийн хороо, Монгол Улсын нийгэм, эдийн засгийн байдал, 2018 оны эхний 9 сард[몽골국통계청, 몽골국 사회경제상황, 2018년 9월 기준], https://www.nso.mn/content/2051#.W9A6ymZRdok(2018.10.10).

은 거의 증가하지 못할 전망이다. 그러나 수출품에 대한 수요감소, 구조개혁의 둔화, 투자환경의 불리한 변화 등의 위험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을 전망이다. 몽골은 중기적으로 첫째 Oyu Tolgoi(OT)와 관련된 투자와 Tavan Tolgoi(TT) 탄광과 관련된 여러 프로젝트의 시작으로 외국인투자가 유입될 것이며, 둘째 2021~22년에 OT 구리광산개발이 두 번째 단계에 진입하고 생산을 시작하여 수출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부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몽골의 대외경제정책

몽골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주요 경제정책들 중에서 경제 및 대외경제 관련 부분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몽골의 대외경제 관계 프로그램"[7]에서는 해외시장진출, 국가기업의 수출지향 사업 활동 증진, 친환경 기술도입과 국가기업 경쟁력 향상, 외국인투자 유치 등 4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다(표3 참조).

표 3. 몽골의 대외경제관계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주요 목표	구현 활동
1	해외 시장 진출	- 파트너 국가와의 경제 관계 확대 - 자유 무역과 경제 협력 협정 체결 - 지역 경제 통합에 가입 - 내륙 국가에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하고 인프라 개발
2	국가 기업의 수출 지향 사업 활동 증진	-몽골 브랜드 수출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진 제품생산, 수출 지원 -금융 시장 발전 지원
3	친환경 기술 도입과 국가 기업 경쟁력 향상	-첨단 기술, 혁신 기술 및 노하우의 도입 -국내 생산자들에 해외 시장 조사 및 정보 제공
4	외국인투자 유치	-몽골의 투자 환경을 투자자에게 홍보 -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투자 증대 -국가 기업의 새로운 시장에 투자 지원

출처: 몽골정부 2015년 제474호 결정, 몽골의 대외경제관계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필자 작성

"국가산업발전정책"[8]은 광업을 제외한 기타 산업에 대한 정책이며 원자재를 국내에서 가공하고, 기술이전, 수출중심의 산업발전, 수입 대체산업 및 첨단기술과 혁신 기반경제 생산 촉진을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몽골정부의 프로그램 2016-2020년"[9]에서는 자유무역지대의 활동을 강화하고, 외국

7) Монгол улсын засгийн газрын 2015 оны 474-р тогтоол, Монгол улс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гадаад харилцаны бодлого[몽골정부 2015년 제474호 결정, 몽골의 대외경제관계 프로그램].

8) Монгол Улсын Их Хурлын 2015 оны 62 дугаар тогтоол, Төрөөс аж үйлдвэрийн талаар баримтлах бодлого[몽골 국회 2015년 제62호 결정, 국가산업정책].

9) Монгол улсын их хурлын 2016 оны 45 дугаар тогтоол, Монгол улсын засгийн газрын 2016-2020 оны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хөтөлбөр[몽골 국회 2016년 제45호 결정, 몽골정부의 프로그램 2016-2020년].

및 국내투자를 지원하고, 수출에 대한 관세, 세금, 전문검사 서비스를 “one window” 형식으로 실행하고, 국제운송과 물류네트워크를 개발하고, ‘후식’에 복합운송물류센터를 건설하고, 교통 부문에서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인프라·교통사업 참여를 통해 국제운송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세 기둥 개발정책”[10]에서는 농업가공공장을 국제표준에 맞춰 발전시켜 식품을 수출하고, 제4차 산업혁명을 시작하고, 광산업과 중공업 분야 개발을 발전시키고, 관련 운송개발과 인프라를 건설하고, 물류를 개발, 지역과 이웃국가들을 경제통합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대외무역을 개혁하고, 국내생산을 지원하는 무역망 구축 등을 강조했다.

“산업화 21:100” 국가 프로그램[11]에서는 비(非)광물제조업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21년 총수출에서 비(非)광물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15%까지 증가시킬 것을 명시하고 있다.

“몽골 수출” 프로그램[12]은 비(非)광업산업, 수출 관련 법률, 투자, 재정 및 세금환경을 안정시키고 신제품 수출 지원, 수출품 경쟁력 향상, 무역 촉진, 수출시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몽골정부의 정책들을 살펴보고 정리하면, 수출중심의 산업발전과 비(非)광물수출 확대에 중점을 두고, 생산자들의 해외시장진출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몽골의 대외경제협력 현황

몽골과 주요국가와의 협력현황을 선행연구에서 자세히 평가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016년 이후의 협력동향에 중점을 두었다.

몽골의 교역파트너 국가를 2017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국이 67.3억 달러(63.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러시아 12.8억 달러(12.2%), 영국 6.8억 달러(6.5%), 일본 3.7억 달러(3.6%), 미국 2.2억 달러(2.1%), 한국 2억 달러(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역파트너 구조를 보면 몽골은 무역다각화를 이루지 못하고 편향된 무역구조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출은 거의 중국(85.6%)에만 의존하고 있고, 영국(10.7%) 이외에는 수출량이 매우 부족하다. 수입파트너의 경우에는 중국(32.9%), 러시아(28.1%)로 총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일본(8.4%), 미국(4.8%), 한국(4.6%), 독일(3.0%)이 차지하고 있다(표4 참조).

표 4. 몽골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추이(2017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총 교역				수출				수입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0) Монгол улсын засгийн газрын 2018 оны 42 дугаар тогтоол, Гурван тулгуурт хөгжлийн бодлого[몽골정부 2018년 제42호 결정, 세 기둥 개발정책].

11) Монгол улсын засгийн газрын 2018 оны 36 дугаар тогтоол, Үйлдвэржилт 21:100」 үндэсний хөтөлбөр [몽골정부 2018년 제36호 결정, 산업화 21:100」 국가 프로그램].

12) Монгол улсын засгийн газрын 2018 оны 278 дугаар тогтоол, Монгол экспорт」 хөтөлбөр[몽골정부 2018년 제278호 결정, 몽골수출프로그램].

1	중국	6735.2	63.9	1	중국	5307.4	85.6	1	중국	1427.7	32.9
2	러시아	1286.8	12.2	2	영국	660.5	10.7	2	러시아	1219.2	28.1
3	영국	689.9	6.5	3	러시아	67.7	1.1	3	일본	363.2	8.4
4	일본	378.0	3.6	4	이탈리아	43.3	0.7	4	미국	208.4	4.8
5	미국	216.7	2.1	5	싱가포르	26.1	0.4	5	한국	197.7	4.6
6	한국	209.3	2.0	6	일본	14.8	0.2	6	독일	128.4	3.0
7	독일	140.0	1.3	7	독일	11.6	0.2	7	폴란드	48.3	1.1
8	이탈리아	89.1	0.8	8	한국	11.6	0.2	8	이탈리아	45.8	1.1
9	폴란드	48.6	0.5	9	미국	8.3	0.1	9	말레이시아	40.0	0.9
10	싱가포르	43.6	0.4	10	이란	8.3	0.1	10	베트남	39.8	0.9

출처: 몽골국통계청, 몽골국 통계연보 2017에서 필자 작성

몽골의 주요투자 국가들을 2018년 6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몽골투자의 선두국가는 캐나다로 53.5억 달러(28.9%)를 기록하고 있다. 이어 중국 46.8억 달러(25.3%), 싱가포르 16.3억(16.3%), 룩셈부르크 14.6억 달러(14.6%), 홍콩 10.2억 달러(10.2%)로 이들 국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네덜란드(7.0%), 미국(6.8%), 일본(6.2%), 한국(4.5%), 영국(4.2%) 순이다(표5 참조).

표 5.몽골의 FDI 유치 추이(~2018년 6월, 누적액 기준), 단위: 억 달러, %

순위	국가	총투자			지분형 자산[13]		채무형 자산[14]	
		금액	비중	201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캐나다	53.5	28.9	4.8(6)+	10.5	10.2	43.1	52.4
2	중국	46.8	25.3	35.5(1)−	42.1	41.0	4.6	5.6
3	싱가포르	16.3	8.8	5.0(5)+	2.7	2.6	13.6	16.5
4	룩셈부르크	14.6	7.9	5.2(4)=	6.2	6.0	8.5	10.3
5	홍콩	10.2	5.5	1.9(9)+	7.4	7.2	2.8	3.5
6	네덜란드	7.0	3.8	21.5(2)−	4.5	4.4	2.5	3.0
7	미국	6.8	3.7	2.5(8)+	5.1	4.9	1.7	2.1
8	일본	6.2	3.3	1.6(11)+	4.7	4.6	1.5	1.8
9	한국	4.5	2.4	3.2(7)−	3.9	3.8	0.6	0.8
10	영국	4.2	2.2	0.7(16)+	2.2	2.1	2.0	2.4
	기타	19.6	8.2		16.1	13.4	3.5	1.7
	총	189.7	100.0		105.3	100.0	84.4	100.0

출처: 몽골은행, 외국인직접투자 통계 2010-2018에서 필자 작성

중국은 몽골의 대외경제협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도 몽골의 제1위 교역국이다. 양국 교역량은 지난 5년간 평균 12.4% 증가했으며, 2017년 기준으로 67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5.7% 증가한 수치이다. 중국은 몽골의 총수출의

13) 지분형 자산: 자회사와 관계회사의 모든 주식, 지점 지분, 기타 자본의 성질을 가지는 것들.
14) 채무형 자산: 채무증권, 예금, 대여금, 매출채권/ 매입채무, 기타 채권.

85%(53억 달러)를 차지했는데, 몽골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 97.7%, 몰리브덴 정광 92.7%, 형석 42%[15]가 중국으로 수출되었다. 중국은 몽골의 제2위 투자국인데, 대몽골투자는 46.8억 달러를(25.3%) 기록하고 있다. 중국 투자는 최근 2년 동안 1-5% 증가했으며, 광물 분야(78%), 무역과 요식업(18.9%)에 집중되어 있다.

2017년 5월에 몽골과 중국은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합의했고, 2018년 9월부터 공동연구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중국과 몽골은 2020년까지 무역규모를 100억 달러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몽골 측에서는 광물제품 이외에도 축산업제품, 농산물, 유기농 식품의 수출을 희망하고 있다. 2017년 중국의 차관으로 바양홍고르 아이막에서 129.4km, 자브항 아이막에서 181km 도로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했다[16].

2018년 4월에 개최된 "중·몽 비즈니스 포럼"에서 정부간 12억 달러의 프로젝트 계약, 기업 간 46억 달러 프로젝트 계약에 서명했다. 이 중 몽골의 고비(Gobi), 항가이(Khangai), 서부 및 동부지역에서 육류가공공장 4개를 건설하고, 검역구역(khoriotseeriin bus)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으며, 이것은 육류생산과 수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부룰주트(Buuruljuut) 300MW 화력 발전소 프로젝트"에 서명했으며, 이를 통해 2022년부터 몽골 전체 에너지 공급의 약 25%와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공급할 것으로 추산된다.[17] 몽·중 경제협력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 9월에 중국무역산업은행(ICBC;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이 공식적으로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대표 사무소를 열었다.[18]

중국은 몽골의 주요 경제협력 국가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중·몽·러 경제회랑 등의 사업으로 이러한 경제협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러시아는 현재 몽골의 제2위 교역국이며, 특히 몽골 수입의 28.1%(12억 1920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몽골의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전략적 국가이며, 몽골의 석유제품 수입의 93.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제품 수입을 러시아에 의존하는 것은 몽골의 물가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러시아의 대몽골투자는 2018년 기준 7,174만 달러(0.1%)로 투자국 중 18위에 있다. 러시아의 투자는 2015년 4억 9,322만 달러에서 2016년에 3,843만 달러로 전년대비 91.2%가 감소했다. 2016년 몽골의 에르데네트 구리 몰리브덴 가공공장, 몽골로르츠베트멘트(Mongolrostsvetment) 형석공장에 대한 러시아 회사 소유분의 49%를 몽골회사에 넘겼기 때문이다. 그 후 2017년에 러시아는 2,925만 달러의 투자를 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76.1%가 증가한 것이다. 현재 러시아의 대몽골 주요투자는 몽·러 합작회사인 "울란바타르 철도회사"이며, 이는 몽골의 유일한 철도회사이다. 2017년 6월에 양국은 "울란바타르 철도회사"의 운행을 개선하기 위해 연간 운송 회전을 300만 톤(현재 223만 톤)으로

---

15)Монгол улсын үндэсний статистикийн хороо(2018),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 2017[몽골국통계청(2018), 대외교역 2017], https://www.nso.mn/(2018.11.16).

16) БНХАУ-аас Монгол улсад суугаа элчин сайдын яам[주몽골 중국 대사관], http://mn.china-embassy.org/mn//zmgx/t1523570.htm(2018.10.15.).

17) Монголын үндэсний худалдаа аж үйлдвэрийн танхим, Business Times №2018262[몽골상공회의소, Business Times №2018262], http://www.businesstimes.mn/a/325(2018.10.19).

18) 2013년에는 중국은행(Bank of China)이 몽골에서 대표 사무소를 열었다.

증가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합의가 실행되면 몽골의 철도운송도 개선이 될 것이다. 2018년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러시아 측은 몽골의 수출품을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이용할 경우에 25년 동안 관세특혜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몽·러 합작 육류공장을 설립하고 생산품을 유럽으로 수출하기로 합의했다. 푸틴 러시아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가스관을 몽골을 통해 건설할 제안을 지원한다고 했다.[19)]

몽골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을 살펴보면, 러시아의 대몽골투자는 감소했으나 몽골의 석유제품 수입, 몽골의 철도와 같은 전략적 사업에는 예전과 같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 육류생산에 투자하고 합작공장을 설립하면 전략적 사업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2018년에 "몽골 러시아 경제포럼"에서 바트톨가 몽골대통령은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 가입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제안했다.

***중·몽·러 경제회랑:** 2016년 중국, 몽골, 러시아는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32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는데,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7년 32개의 프로젝트 중에서 중앙철도 회랑, 아시아 자동차 도로망 AH-3 노선, 세 국가를 통과하는 500kW 전기 전략망 프로젝트를 가장 중요한 3가지 프로젝트로 여기고 연구를 실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2017년 몽골 총리의 러시아 방문 시 서부철도 회랑과 동부철도 회랑 추진이 중요하다고 고려하여 "라기노~키질~차간 톨고이~아르츠 수르~오브도~에르데네트" 간 철도 건설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20)]

2018년 9월 "중·몽·러 경제회랑 진흥을 위한 공동 메커니즘 구축에 관한 양해 각서"에 서명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몽골의 축산물 수출확대에 관심을 가지고 육류공장을 설립하고 수출을 추진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앞으로 중요한 협력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몽·중·러 경제회랑" 32개 프로젝트로 3국의 경제협력이 확대될 전망이지만 층위가 너무 다양하여 사업이 구체화되고 실제로 수행되는 과정에서 참여국 간 의견대립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 해당지역의 특징으로 인해 교통·물류 인프라 협력의 투자 대비 효율이 낮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재성훈・나희승・최필수・Lkhagvadorj DOLGORMAA(2016)].

일본은 몽골의 "제3이웃 국가" 중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이며 몽골의 최대 원조공여국가이다. 또한 현재 몽골의 제4위(3억 7,800만 달러, 3.6%) 교역국이자 8위(6.2억 달러) 투자국이다. 2015년 몽·일 EPA가 체결되었으며, 이는 2016년 6월 7일부터 발효되었는데, 그 후 양국교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6, 2017년에 총교역은 각각 16.8%, 9.7%가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몽골의 수출증가율은 각각 -30.9%, 5.6%, 몽골의 수입증가율은 20.4%, 9.8%이다. 2018년 9월 기준으로 총교역은 4억4370만 달러인데, 이 중 몽골의 수출은 1,950만 달러, 수입은 4억 2,420만 달러를 기록했다.

---

19) Монгол улсын ерөнхийлөгчийн тамгын газар[몽골 대통령실], https://president.mn/5328/(2018.10.19).

20) Ерөнхий сайд Ж.Эрдэнэбат ОХУ-д айлчлаад ямар асуудлуудыг шийдэв[에르덴바트 총리 방러 시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나],
http://www.mglnews.mn/content/read/73311/Yerunhii-said-J.Erdenebat-OHU-d-ajillaad-yamar-asuudluud-shiidev%3F.htm(2018.10.19).

표 6. 몽·일 EPA 이후 교역과 투자 증가, 단위: 백만 달러, %

	2016		2017		2018.9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 교역	344.7	16.8	378.0	9.7	443.7	n/a
몽골의 수출	14.0	−30.9	14.8	5.6	19.5	n/a
몽골의 수입	330.6	20.4	363.2	9.8	424.2	n/a

출처: 몽골국통계청, 몽골국 통계연보 2017에서 필자 작성

몽·일 EPA 이후 양상을 보면, 양국교역량이 첨자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쉬운 점은 몽골은 교역의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대몽골투자는 2018년 6월 기준으로 6.2억 달러(3.3%)이며, 2016년 대비 8.3%, 2017년 대비 18.0% 증가했다. 일본의 대몽골투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과 달리 비(非)광물 분야인 무역, 요식업, 금융, 관광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2018년 6월 기준으로 3,400만 달러의 투자를 했으며 일본은 몽골의 에너지, 농업, 정보통신 분야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싱가포르와 몽골은 1970년에 외교관계 수립 이후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01, 2002, 2013년에 몽골대통령이 싱가포르를 방문했고, 2012, 2016년에 싱가포르 외교부장관과 국무총리가 몽골에 방문했다. 최근 싱가포르와 몽골의 경제협력이 활발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싱가포르는 몽골의 3위(16.3억 달러) 투자국이자 제10위 교역국(4,660만 달러)이다. 몽골의 대(對)싱가포르 수출품은 정련동과 특수강, 일부 항공제품이며, 수입품은 담배, 석유제품, 파이프, 스팀보일러, 컨테이너 크레인, 액세서리, 전기와 전자장비, 가구 등이다.

싱가포르의 대몽골투자의 특징은 총투자 16.3억 달러 중 16.5%가 지분형 자산, 83.4%가 채무형 자산이라는 점이다. 싱가포르 투자자들과 싱가포르의 투자회사인 모닝스타랜드(Morning Star Land)는 수도 올란바타르의 남양주 거리에 고급주택 단지를 건설중이다. 2017년 싱가포르의 투자회사인 “Ti−My Mongolia”는 몽골의 투브 아이막에 “저렴한 주택” 건설계약을 하고 주택을 건설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3개의 서비스 구역을 포함한 27세대의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며, 1㎡ 당 1백만 MNT 이하로 판매하는 계약이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싱가포르는 최근 몽골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주요 투자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2014년 이후부터 싱가포르의 투자자들이 몽골의 광업, 부동산, 금융, 건설 분야 등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지역 주택 관련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앞으로 투자와 교역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3. 한·몽 경제협력 현황

2010년 이후 한·몽 교역을 살펴보면 2011−2013년에 증가하다가 2014−2016년에 전년 대비 각 각 -29.7%, −11.1%, −36.6% 감소했다. 2014−2016년은 몽골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이며 몽골의 수입감소에 따라 총교역도 감소했다. 2017년에는 총교

역이 2억 93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 증가하고, 몽골의 대한국 수출은 140만 달러, 수입은 1억 9,77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18년 9월 기준으로 보면 총교역은 2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한·몽 교역대상품목에서 큰 변화가 없고, 몽골은 지속적으로 교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표 7. 한·몽 교역, 단위: 백만 달러,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9
총교역	212.3	394.6	480.0	520.4	366.1	325.3	206.4	209.3	207.4
증가률	-	85.9	21.7	8.4	-29.7	-11.1	-36.6	1.4	-
수출	30.5	37.9	12.3	13.0	13.5	66.6	8.5	11.6	14.8
수입	181.8	356.7	467.8	507.4	352.6	258.7	197.9	197.7	192.6
교역수지	-151.3	-318.9	-455.5	-494.3	-339.1	-192.1	-189.4	-186.1	-177.8

출처: 몽골국통계청, 몽골국 통계연보에서 필자 작성

한국의 대몽골 자원수입량은 낮은 수준에 있으며, 2015년 이후 급격히 감소했다. 한국은 최근 3년 동안 형석, 몰리브덴을 수입했고, 텅스텐광과 석탄은 소량으로 수입한 바 있다.

표 8. 한국 대몽골 자원 수입, 단위: 톤, 천 불

광종	단위	2015[21]		2016		2017	
		수입량	수입금액	수입량	수입금액	수입량	수입금액
갈탄	톤					14	1
기타 석탄	톤			18	18		
몰리브덴광	톤	1353	12042	36	222	344	2,367
텅스텐광	톤			15	120		
형석	톤	20,214	5,682	9,023	2,286	6,311	1,549
총			17,724		2,646		1,549

출처: 한국의 자원정보서비스, 수출입통계자료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한국의 대몽골투자를 살펴보면 몽골의 투자국 중 9위에 있으며, 투자액은 4.5억 달러(2.4%)이다. 2014년 이후로 대몽골투자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표 9. 한국의 대몽골 투자, 누적액 기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투자금액	3.3	3.4	3.9	4.2	4.4	4.4	4.4	4.4
전년 증가률	-	4.1	14.2	7.4	3.9	1.5	-0.4	0.4

출처: 몽골은행, 외국인투자 통계에서 필자 작성

한국의 대몽골투자는 대부분 광업(27.1%)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으로는 도소매업(17.6%), 건설업(12.5%), 부동산업 (11.1%) 등이다.

21) 몽골 통계 자료에는 가공 구리 2,288톤, 몰리브덴 광석과 정관 8,428톤을 수입했다고 되어 있다.

표 10. 한국의 대몽골 투자, 분야별[22](1994~2017년 기준),단위: 천 달러, %

업종대분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투자비중
합계	603	918273	2235	464725	100
광업	48	303819	442	125877	27.1
도매 및 소매업	145	148971	427	81580	17.6
건설업	78	101543	243	58071	12.5
부동산업	38	102502	216	53293	11.5
정보통신업	23	44745	69	29065	6.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	42146	91	23193	5.0
제조업	89	64932	214	22833	4.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6	23511	95	18628	4.0
운수 및 창고업	17	18653	75	14037	3.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0	23034	100	13740	3.0
숙박 및 음식점업	19	11547	43	8916	1.9
농업, 임업 및 어업	16	9712	80	5125	1.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	4591	9	2981	0.6
금융 및 보험업	9	3225	21	2956	0.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0	10359	41	2503	0.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	1520	40	750	0.2
협회및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1	2683	19	676	0.1
교육 서비스업	4	370	6	370	0.1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	400	4	130	0.0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교역, 외국인 투자현황을 보면 한·몽 경제협력수준은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예전과 같은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국의 경제협력이 둔화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몽골의 경제위기의 영향이 있으나 이전에 존재했던 애로사항들 역시 개선되지 못한 점도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몽골의 경우에는 취약한 투자환경, 금융산업의 미발달, 높은 물류비용, 낙후된 인프라, 기존 투자정책과 관련된 정부결정의 잦은 번복 등 법적·제도적 미비, 불투명한 행정처리, 부정부패 문제[이재영・권가원(2016)] 등이 아직 개선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2016년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합의하고, 경제동반자 협정(EPA) 형태로 이를 진행하기 위해 공동연구를 시작했다. 2018년 9월에 공동연구결과를 각 국 외교부에 제출했으며, 연구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향후 한·몽 경제동반자협정이 체결되면 우선 양국교역이 확대된다고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자원부국과 경제협력 효과로 에너지, 자원분야에서 신산업 진출 기회도 얻을 수 있으며, 건설사업, 인프라, 광물분야의 경제협력에 긍정적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Г. Мөнхнасан(2017)]. 그러나 몽골의 경우에 수출품의 신상품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제품다양화 전략을 이루지 못하

22) 2016년 한국의 대몽골 투자통계와 거의 차이가 없다.

면 한·몽 EPA 결과에 부정적인 영양을 미치게 된다[뭉크낫산・심의섭(2017)]. 2018년 1월의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에서 몽골 후렐수흐 총리는 '한·몽 경제동반자협정'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며 EPA를 통해 몽골은 동아시아와 태평양으로, 한국은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3)]

한국은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북방경제 주요국들과의 협력, 상호 호혜적 경제·안보적 이익을 추구한다고 했으며 "9-BRIDGE" 전략은 '가스관,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농업, 수산업, 산업단지"라는 총 9가지 분야를 강조하고 있다. 신북방정책의 콘셉트에서 북방경제협력 대상국가 중 하나는 몽골이며, 몽골과 관련된 전략을 정리해보면 보면 "자원개발,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의 확대" 전략을 강조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자원개발, 인프라 분야 협력의 지속 강화", "한국이 강점을 갖는 제조업, 농업 및 정보통신 분야로의 협력 확대", "정부 간 협의체 등을 활용한, 민간지원 및 정부협력 강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신북방정책에 "몽·중·러 경제회랑과 연계한 사업의 발굴과 개발", "몽골단철도 이용의 활성화, 향후 남북철도 연결"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2018년 1월 이낙연총리는 문재인정부의 신북방정책을 소개하면서 몽골 측과 자원·에너지, 교통·인프라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몽 EDCF 기본약정을 체결하고 2017~2019년간 총7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2018년 3월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몽골을 방문하여 몽골의 신도시개발 참여, 축산가공업 협력, 철도현대화 사업 참여방안, 대기오염 해소를 위한 친환경 청정에너지 발전소 등 주요 인프라 건설에 한국기업의 참여를 요청하고,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에 대한 몽골 측의 적극적인 협조 의지를 확인했다.[2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몽 경제협력현황을 바탕으로, 한국의 신북방정책의 전략분야를 몽골의 경제정책 내용과 비교하고 한·몽 경제협력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평가해보려고 했다.

표 11. 신북방정책과 몽골 경제 정책의 비교

한국의 신북방정책	몽골의 경제정책	협력 잠재력과 가능성
가스-자원	강	5
철도	강	4
항만	약	2
전력	강	5
북극항로	없음	1
조선	없음	1
농업-축산업	강	4
수산	없음	1
산업단지- 제조업	강	5

출처: 한국의 북방정책, 몽골의 경제정책자료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23) 한국·몽골, '신북방정책' 등 경제협력 방안 논의,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0&key=20180116.99099006909(2018.11.4).
24) 몽골 총리 방한,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248702(2018.11.4).

한국의 신북방정책의 “9-BRIDGE” 전략을 몽골의 경제정책[25] 내용과 관련하여 각 분야별 중요성을 강, 중, 약 수준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가스-자원, 철도, 전략, 농업, 산업단지-제조업의 경우는 강, 항만은 약으로 나타나고, 북극항로, 조선, 수산분야에 관한 정책은 없었다.

한·몽 협력 잠재력과 가능성을 몽골의 원자재 공급 잠재력을 고려해서 5점으로 평가했다. 이 평가를 정리해보면 협력 잠재력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은 자원, 전력, 산업단지(5), 그 다음으로는 철도(4), 농업(4) 부분이었다. 협력 잠재력과 가능성이 낮은 부분은 항만(2), 북극항로(1), 조선(1), 수산(1) 등이다.

4 .한·몽 경제협력 방안

[가스] 몽골의 경우에는 [자원분야]

자원분야의 협력을 생산(채굴), 광물자원 수입, 광물자원 가공 등 3가지 방향으로 나눠볼 수 있다. 한국의 대몽골투자는 광물자원 분야에 27.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광물자원 분야의 주요 투자는 15개 국가에서 26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중 생산단계에 있는 13개의 사업을 보면 중국, 필리핀, 호주, 캐나다, 멕시코에서 유연탄, 우라늄, 동 등의 자원이다.[26] 한국의 경험, 기술, 자본능력은 아직 캐나다, 중국과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에 몽골에서의 생산보다 채무형 자산 투자가 더 가능할 수 있다.

한국이 몽골에서 광물자원을 수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국의 8대 전략광물 중에서 철광석, 유연탄, 동광, 아연이 몽골에 있다. 몽골의 석탄수출의 80%가 유연탄인데, 한국은 2017년 기준으로 1.3억 톤 유연탄을 수입했다. 몽골에서 자원을 수입할 가능성은 높지만, 광물자원 수출에 대한 운송과정, 운송비 관련 애로사항들을 양국만의 합의로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에 잘 해결되고 있지 않다.

표 12. 한국의 석탄 수입 현황, 단위: 톤

	2013	2014	2015	2016	2017
유연탄	116,221,747	117,873,048	119,321,533	118,468,473	131,464,338
무연탄	8,482,428	8,293,559	8,938,411	9,423,522	7,003,337
토탄	60,598	66,461	72,226	65,039	68,874
갈탄	1,462	2,143	2,668	1,682	513
기타석탄	1,803,391	4,865,102	6,823,633	6,569,308	9,768,948
소계	126,569,626	131,100,313	135,158,471	134,528,024	148,306,010

출처: 한국의 자원정보서비스, 수출입통계 자료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몽골은 한국으로의 광물자원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중국철도와 러시아철도· 북한의 나

25) 「몽골의 대외경제 프로그램」, 「몽골정부의 프로그램」, 「국가 산업발전정책」, 「세 기둥 개발정책」, 「산업화 21:100」 국가 프로그램, 「몽골 수출」 프로그램 등 6개 정책을 내용별로 정리한 것이다.

26) 한국광물자원공사, https://www.kores.or.kr/views/cms/hkor/bi/bi01/bi0101.jsp(2018.11.10).

진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아직은 항구 이용비용 및 상차비용으로 막대한 운송비용이 발생하고 있다[이재영・권가원(2016)]. 몽골에서 광물자원을 원활하게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로·철도·도로·물류 등 인프라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애로사항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국내외 연구자들[P. Solongo(2018), 뭉크나산·심의섭(2017), 이언경(2011)]이 한·몽 협력 내륙 항만(Dry Port)[27]의 건설과 운영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으며, 향후 유라시아 지역진출을 지원해줄 수 있는 몽골의 내륙 항만[28]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몽골에서 광물자원 수출보다 광물자원 가공을 선호하고 구리제련소· 제철소·정유·석탄 가공·기타 자원가공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 철 가공, 석탄 가공 등 기술이 있어서 몽골에서 광물자원 가공공장을 설립하고 수출할 수도 있다.

[전력]

한·몽 간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서 전력에너지 생산과 수출을 확대할 수 있다. 몽골정부는 전력에너지원을 다각화하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활용 증대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 전력에너지 발전전략(2015-2035)"을 추진하고 있다. 몽골은 1차 에너지자원 측면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이며, 세계최고의 에너지 수요자 국가들과 지리적으로 가깝다. 동북아시아의 에너지 소비량은 2040년에 두 배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국경 간 전력개발이 중요하게 되었다. 문재인대통령은 러시아의 "에너지 슈퍼링"[29] 구상, 몽골의 고비사막의 풍력, 태양광과 함께 거대한 슈퍼그리드로 지역 에너지시스템을 결합하면 동북아는 세계최대의 에너지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며, 동북아 슈퍼그리드[30] 구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31] 바트톨가 몽골대통령은 동북아 슈퍼그리드 에너지 네트워크의 공동작업팀 구성을 제안했다.[32] 그리고 몽골과 중국 공동 에너지 복합체와 초고압 전력선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몽골에서 중국으로 1,500km 초고압 전력선 공사 타당성 연구가 끝나고 준비단계에 있다고 공표했다.

2018년 9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몽골 울란바타르시 날라이흐구에 산업통상자원부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일환으로 '몽골 친환경에너지타운'[33] 사업을 시작했다. 양국은 한국의 신재생발전 기술역량을 활용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통해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설치해 신재생발전 비율을 높여 환경오염 및 전력품질 개선에 기여할 예정이다.[34] 태양광 200kWp, 풍력 210kW, 에너지저장장치(ESS) 900kWh로 구성된 신

---

27) 내륙항(Dry Port)란 국제무역 화물의 취급, 보관, 검역 및 통관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교통수단으로 연결된 내륙의 물류센터로서 내륙에 위치한 항을 말하는데, 아프리카의 보트와나라오스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28) 몽골은 2016년에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 사회위원회의 "Intergovernmental Agreement on Dry Ports"에 가입했고, 2018년 내륙항만 건설을 개발할 실무 그룹은 설립하고 Zamiin-Uud, Ulaanbaatar, Altanbulag, Sainshand, Choibalsan 등 5개 지역을 지정했다.

29) 사할린 에너지개발 프로젝트를 말한다.

30) 슈퍼그리드는 몽골에서 태양광・풍력으로 생산한 전력을 동아시아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31) 문대통령이 놓는 러시아의 '9개의 다리'는?…"극동개발은 북핵 근원적 해법" https://news.joins.com/article/21916583(2018.10.10).

32) Монгол улсын ерөнхийлөгчийн тамгын газар[몽골 대통령실], https://president.mn/5254/(2018.10.17).

33) 친환경에너지타운은 하수처리장, 매립지, 광해오염지역 등 사람들이 기피하는 시설 또는 공간을 복구하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모델이다.

34) KIAT, 몽골 '친환경에너지타운' 착공…"신북방 정책 이행",

재생 발전원을 구축할 것이다. 몽골의 “Moshea Eco Energy” 사(社)와 한국 부동산 “Idea Bridge” 사(社)는 몽골 신공항의 전기를 공급할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다. 2021년 완공될 이 프로젝트는 1억 달러 규모이며, 몽골 전기에너지 5%를 공급할 계획이다.[35] 이들 사업을 바탕으로 전력생산과 수출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

[산업단지- 제조업]

한국의 대몽골 제조업 부분 투자는 2017년 기준으로 2만 2,833달러이며 총투자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몽골 경제협력에서 가장 보완적이고 협력 가능한 분야는 제조업이라고 연구자들은 제안해왔지만, 이 분야의 경제협력은 미비한 수준이다. 한국의 제조업 관련 투자자들은 몽골의 내수시장 규모, 계절성, 인력 등 문제로 제조업 시장 진출을 효율성이 낮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상황이다.

[철도]

몽골의 경제회복에 따라 지체되고 있던 철도공사들이 사업 개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 몽골의 철도현대화 사업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 몽골정부에서 2020년까지 완공할 철도사업은 “Tavantolgoi-Gashuun Sukhait”," “Khuut-Bichigt”, OT 철도, “Shivee huren-Cekhe”, 공사를 새로 시작할 사업은 “Zuunbayan-Khangi”, “Bogd khan”, “Erdenet-Ovoot” 등이다. 이들 철도공사가 완공되면 철광석 수송을 중심으로 유연탄, 구리 정광, 건축자재, 금속제품 등을 운송 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철도공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몽골 철도 공사

출처: 몽골 도로교통개발부

(1)“Erdenet-Ovoot”(542km) 철도건설에 12억 달러가 필요한데, 중국의 “China Gezhouba Group International”과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2019년에 시작할 예정이다. “Erdenet-Arts suuri”는 Tuva 공화국의 Kyzyl를 통해 Kyzyl-Kuragino 철도와 연결될 예정이다.

(2)“Tavantolgoi-Gashuun Sukhait”(267km, 7.9억 달러 소요) 철도는 지분 51%인 국

---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913000439(2018.11.7).

35) Өмнөд Солонгосын компани Монголд нарны цахилгаан станц барина.[한국회사 몽골에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한다], http://www.sonin.mn/news/easy-page/65683(2018.11.1).

가소유의 “Tavan tolgoi 철도 사를 설립했으며, 나머지 49%에 투자할 외국인 투자자들과 합의를 시작한다고 했다.

(3)“Shivee huren-Cekhe”(15km) 철도는 지분의 51%를 국가소유의 “Shivee huren 철도공사”를 설립하고, 49%를 “몽골철도회사”가 소유하게 되었다.[36]

(4) “Tavantolgoi-Zuunbayan”(414km) 철도를 양허계약으로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서 “Zuunbayn 철도 공사”를 설립하고 51%를 국가소유, 49%를 “몽골철도회사”가 소유하기로 했다.[37] 현재는 몽골의 “Tavantolgoi-Gashuun Sukhait” 철도의 지분 49%에 투자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농·축산업]

한국과 몽골은 농·축산업 분야에서 원자재 가공, 제품개발 등 2개 방향으로 협력 할 수 있다. 예컨대 유제품가공, 가죽가공, 가족제품 개발, 열매·과일 제품개발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의 대몽골 농축산업 투자는 512만 달러로 한국의 총투자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 3월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몽골과 축산가공업 협력을 강조했다. 몽골의 가축수가 2016년에 10%, 2017년에 7.5% 증가하여 6,621만 마리를 기록하고 있다. 몽골정부는 “2017-2020 축산업 분야 정책”을 시행하고 축산원료를 가공하여 식품 수출국가가 될 목표를 제시했다. 2018년 “집약적인 축산업 육성” 국가 프로그램, “일부 농업지대 설정에 대한 정부령” 등을 제정하고 농축산업을 복합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현재 러시아와 중국은 몽골에 육류가공 공장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향후 육류수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축산가공업 경험을 보면 2012-2016년에 식료품 제조업(육제품, 유제품, 열매·과일 제품 등) 관련 특허 9700개, 실용신안(utility model) 115개, 섬유제품 제조업(울·캐시미어 제품, 방직물 등) 관련 특허 2017개, 실용신안 24개,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관련 특허 2048개, 실용신안 780개를 등록했다[김보라(2018)]. 그러나 한국과 몽골 간 농축산업 협력의 보완성과 잠재성은 높지만 축산업의 생산방식의 차이에 인해, 한국 투자자들은 제조업 분야와 같이 경제협력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여기고 있다.

[항만]

몽골은 내륙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제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2007년에 해양청을 설립하고 몽골교통대학교에서 해양학과를 개설했다. 한국의 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해운·어업기술연구소와의 협력으로 몽골의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는 단기와 중기에는 경제협력 가능성이 약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북극항로], [조선], [수산]

북극항로, 조선, 수산 분야의 경우에는 몽골이 내륙국이기 때문에 당장 한국과 경제협력이 이루어질 잠재성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36) “Тавантолгой төмөр зам” компани байгуулав.[타반톨고이 철도공사를 설립했다], http://montsame.mn/read/95218(2018.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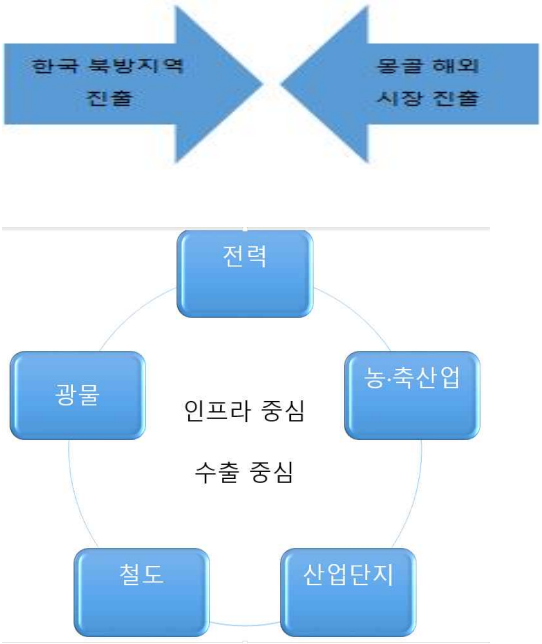
37) Зам тээврийн хөгжлийн яам[도로교통발부], http://mrtd.gov.mn/single/55/item/1490(2018.11.4).

한·몽 인프라·수출 중심 경제협력 전략 제안

한국의 북방지역 전략은 이전 정부 때[38]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던 전략이지만, 이번 정부는 동북아지역의 장기적 평화협력 환경조성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천을 위해 북방지역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몽골은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 고비텍 아시아슈퍼그리드(Gobitec and Asia Super Grid) 사업, 중·몽·러 경제회랑사업 등으로 주변국과 교통·물류·전력망을 구축하는 등 지역협력확대로 전략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

신북방정책의 유라시아 진출 필요성과 몽골의 해외진출 필요성, 양국 필요성의 보완적 연계를 고려하여 한·몽 간 "수출·인프라 중심 경제협력" 전략 모델을 제안한다. 이 전략은 한국과 몽골의 공통수요를 반영하고 필수적인 인프라 협력, 새로운 수출 지향적 협력을 중심으로 한다.

그림 2. 한·몽 "인프라·수출 중심 경제협력" 전략



출처: 필자 작성

한국은 몽골의 신도시개발사업에의 참여, 철도현대화 사업에의 참여, 친환경 청정에너지 발전소 건설에의 참여 등 주요 인프라 건설에 한국기업의 참여,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에 대한 몽골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39] 따라서 신북방정책의 광물, 철도, 전력 분야를 인프라 중심 경제협력으로 진행하며 광산업 관련 인프라인 신도시·철도·도로·전력망 건설, 물류·창고 운영 등 사업의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예컨대, 몽골에서 2019-2020년에 Emeelt(3,564억 MNT), Nalaikh(1,980억 MNT), Baganuur(2,087억 MNT)[40] 산업기술단지 인프라 건설, "Tavantolgoi-Gashuun

38) 노태우 정부 북방정책, 김대중 정부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 평화번영정책,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경제중심), 박근혜 정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경제 중심) 등이다.

39) 2018년 3월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방몽 시 제안한 사항들.

40) Хүнс, хөдөө аж ахуй, хөнгөн үйлдвэрийн Сайдын 2018 оны А/129-р тушаалын хавсралт, Үйлдвэрж

Sukhait"(267km, 7.9억 달러), "Shivee huren-Cekhe"(15km), "Tavantolgoi-Zuunbayan"(414km)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신북방정책은 한국이 강점을 갖는 제조업, 농업 및 정보통신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 역내 경제 현대화 및 산업다각화 정책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몽골의 경제정책은 경제성장과 안정을 위해 산업다각화, 비(非)광물제품 수출 확대, 해외시장 진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한·몽 EPA를 추진하고 있는 차원에서 수출지향 경제협력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 따라서 한국은 기술과 자본으로 몽골의 수출 가능한 산업에 투자하는 전략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한다면 양국은 경제협력 효과와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몽골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크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정책과 경제발전 조건들은 차이가 있지만, 광물자원 수출의존도가 높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수출지향 경제협력은 기타 중앙아시아 국가에서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한·몽 수출지향 경제협력은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로 지속가능한 경제협력이 될 수 있다. 한국과 몽골의 현 정부가 바뀌어도 한국의 북방에 대한 높은 관심, 몽골의 비(非)광물수출에 대한 관심과 정책은 지속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몽 수출지향 경제협력을 실행할 수 방법 중 하나로 한국의 수출산업단지(Export industrial complex) 건설 경험을 이전하고, "한·몽 협력 수출산업단지"라는 모델 단지를 설립할 수 있다. 내년부터 울란바타르 인근지역에서 시행할 에멜트(Emeelt) 경공업산업단지, 날라이흐(Nalaikh) 건축재료 산업기술단지, 바가노르(Baga-Nuur) 중공업 산업기술 단지건설이 시작될 예정이며, 이들 산업기술 단지 안에서 "한·몽 협력 수출산업단지"를 설립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둘째 방법으로는 몽골의 자유무역지대에서 단독 및 합작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 현재 몽골에는 러시아와의 국경지역에 알탄불락(Altanbulag) 자유무역지대, 중국고의 국경지역에 자민우드(Zamiin-Uud) 자유무역지대가 설치되어 있고, 외국기업이 이 지역에 투자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수입·수출 관세, 부가세, 소비세 등을 면제하고, 토지사용료를 감면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으며, 기반 인프라와 운영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아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

셋째 방법은 한·몽 협력 스타트업(start up) 회사를 설립하고 몽골에서 수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세우고 판로를 개척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한·몽 협력 스타트업들에서 우선 창업자의 자본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대몽골투자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의 자본을 끌어당기기 위해 한국의 벤처 캐피털(VC: venture capital)[41] 회사와 엔젤 투자

илт 21:100 үндэсний хөтөлбөрийг 2018-2021 онуудад хэрэгжүүлэх арга хэмжээний хөтөлбөр [식품농업경공업부 장관의 2018년 A-129 명령 부록, 산업화 21:100 국가 프로그램을 2018-2021년에 실행할 계획].

자(AI: angel investor)[42]들과 연결할 수 있다. 따라서 한·몽 협력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할 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한국의 대몽골 ODA를 몽골의 수출지향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활용하고, 몽골에서 수출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한·몽 통합 브랜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향후 새로운 통합 브랜드를 개발하고 유라시아 지역에 수출하거나 이런 모델을 활용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에 진출 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몽골에 있는 KOTRA의 활동을 확대하고 “한·몽 통합 브랜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브랜드에 개발, 수출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

수출품의 사례는 현재로서 전략, 광물 가공품, 축산업 제품, 화장품, 미용품 생산 및 수출이다. 전력은 몽골의 고비사막의 풍력과 태양광을 이용하고 동북아 슈퍼그리드[43] 구축을 통해 몽골에서 생산하고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 몽골정부는 산업다각화 차원에서 단순한 광물자원 개발이 아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며 유연탄, 우라늄, 동, 석유 등 자원을 가공하는 기술개발에 협력하고 생산 및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 몽골의 축산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육류수출은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며,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육류제품 가공 공장을 약 5개 정도 설립하기로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높을 수 있다. 물론 가죽・신발·가방·의상 등 제품 개발 역시 가능할 수 있다.

5. 결론

한국은 신북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북방경제 주요국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들 북방경제협력 대상 국가 중 하나가 몽골이다. 몽골은 경제위기에서 회복되고 있고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비(非)광물 산업 다각화, 비(非)광물 수출 지원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한·몽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한 이 연구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몽 경제협력은 교역, 외국인투자 부분에서 증가추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몇 년 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중·몽·러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되면 한·몽 경제협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한국과 몽골의 경제협력발전은 예상되는 잠재력보다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새로운 수준의 협력형태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몽골의 경제정책과 비교하여 한·몽 경제협력 잠재력과 가능성을 평가해 본 결과, 한·몽 협력 잠재력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은 자원, 전력, 산업

41) 벤처 캐피털이란 잠재력이 있는 벤처 기업에 자금을 대고 경영과 기술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높은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금융자본을 말한다.
42) 기술력은 있으나 창업을 위한 자금이 부족한 초기 단계의 벤처기업에 투자해 첨단산업 육성에 밑거름 역할을 하는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개인을 말한다.
43) 슈퍼그리드는 몽골에서 태양광・풍력으로 생산한 전력을 동아시아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단지, 그 다음으로는 철도, 농업 부문이었다. 그러나 항만의 잠재력은 낮으며, 북극항로, 조선, 수산 분야의 협력 잠재력과 가능성은 없는 편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한국의 북방지역 진출 필요성과 몽골의 해외진출 필요성을 고려하여 양국의 보완적 연계를 인식하고 한·몽간 "수출·인프라 중심 경제협력" 전략을 제안했다. 이 전략은 한국과 몽골의 공통수요를 반영하고 필수적인 인프라 협력, 새로운 수출지향 협력을 중심으로 한다. 신북방정책의 광물, 철도, 전략 분야를 인프라 중심 경제협력으로 진행하며 광산업 관련 인프라로서 신도시·철도·도로·전력망 건설, 물류·창고 운영 등에서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신북방정책의 광물, 전력, 농축산업, 산업단지·제조업 분야에서는 수출지향 산업에 협력에 집중할 수 있다. 한·몽 수출지향 경제협력은 상호 보완적 맞춤형 협력, 또한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로 지속가능한 경제협력이 될 수 있다.

넷째, 신북방정책 실행을 위해 한·몽 협력 전략 목적을 단기적으로 정하고, 경제협력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한·몽 수출지향 경제협력은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며, 한·몽 EPA 추진 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섯째, 선행연구에서 보면 한·몽 협력에 대한 좋은 제안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제안들은 몽골과 한국 사업가들, 관련 전문가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를 위해 한·몽 경제협력 관련 연구와 정보를 관련 전문가들과 기업가들이 이용하도록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한계점은 몽골과 한국, 기타 국가들의 경제협력을 투자, 교역 부분으로만 평가한 점이다. 한·몽 경제협력에 북한과의 경제협력 문제를 반영하지 못했으며, 남·북·몽 3국의 경제협력이 발생할 경우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한국어자료]

김보라(2018), 「몽골 후렐수흐 총리의 신경제정책 방향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전문가풀 몽골연구회 세미나 자료.

나희승(2016), 「몽골의 국제운송 발전전망과 한-몽 교통인프라 협력」, 『유라시아 시대 한·몽 미래 협력 대화 국제 세미나 논문 집』(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127.

뭉크낫산・심의섭(2017),「한국 몽골 EPA 시대의 도래와 경제협력 과제:내륙국 제약의 극복을 위한 경협의 파라다임 쉬프트」, 2017 KIEP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회의 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지원・이재영・박정호 외(2016), 『한국과 몽골의 전략적 협력방안: 분야별 과제와 추진전략』, KOTRA, *Global Strategy Report* 16-007.

윤지현(2017), 「몽골,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 시행」, *EMERiCs* 이슈분석 2017-121. p.3.

이재영・권가원(2016), 「한국과 몽골의 경제협력 현황과 증진방안」, 『 KIEP 세계경제』 제6

권 15호.
이재영(2016), 「유라시아 시대 한 · 몽 경제협력: 평가와 전망」, 『유라시아 시대 한·몽 미래 협력 대화 국제 세미나 논문 집』(대외경제정책연구원), p.69.
이언경(2011), 「우리나라의 대몽골 수입 광물자원의 물류패턴 분석」, 『해운과 경영』 제23호.
재성훈・나희승・최필수・Lkhagvadorj DOLGORMAA(2016), 『중·몽·러 경제회랑의 발전 잠재력과 한국의 연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6-30.

[영어자료]

IMF, 2018 Country Report No. 18/204 (July)
IMF, 2017 Country Report No. 17/396 (December)

[몽골어 자료]

Монгол улсын засгийн газрын 2018 оны 278 дугаар тогтоол, Монгол экспорт хөтөлбөр[몽골정부 2018년 제278호 결정, 몽골 수출프로그램]
Монгол улсын засгийн газрын 2018 оны 36 дугаар тогтоол, Үйлдвэржилт 21:100 үндэсний хөтөлбөр[몽골정부 2018년 제36호 결정, 산업화 21:100 국가 프로그램]
Монгол улсын засгийн газрын 2018 оны 42 дугаар тогтоол, Гурван тулгуурт хөгжлийн бодлого[몽골정부 2018년 제42호 결정, 세 기둥 개발정책]
Монгол улсын засгийн газрын 2015 оны 474 дугаар тогтоол, Монгол улс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гадаад харилцааны бодлого[몽골정부 2015년 제474호 결정,몽골의 대외경제관계 프로그램]
Монгол улсын их хурлын 2016 оны 45 дугаар тогтоол, Монгол улсын засгийн газрын 2016-2020 оны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хөтөлбөр[몽골 국회 2016년 제45호 결정, 몽골정부의 프로그램 2016-2020년]
Монгол улсын их хурлын 2015 оны 62 дугаар тогтоол, Төрөөс аж үйлдвэрийн талаар баримтлах бодлого[몽골 국회 2015년 제62호 결정, 국가 산업정책]
Монгол улсын үндэсний статистикийн хороо(2017), Монгол улс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эмхэтгэл 2016[몽골국통계청(2017), 몽골국 통계연보 2016]
Монгол улсын үндэсний статистикийн хороо(2018a), Монгол улс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эмхэтгэл 2017[몽골국통계청(2018a), 몽골국 통계연보 2017]
Мөнхнасан, Г.(2017), Монгол улс ба БНСУ-ын хооронд ЭЗТХ байгуулахтай холбогдсон зарим асуудлууд, “Бүс нутгийн интеграци ба худалдааны бодлого” олон улсы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хурлын эмхэтгэл, Хуудас 187-199[뭉크나산(2017), 「몽·한 EPA 체결에 관련 문제에 대한 연구」]
Хүнс, хөдөө аж ахуй, хөнгөн үйлдвэрийн Сайдын 2018 оны А/129-р тушаалын хавсралт. 「Үйлдвэржилт 21:100」 үндэсний хөтөлбөрийг 2018-2021 онуудад хэрэгжүүлэх арга хэмжээний хөтөлбөр. [식품, 농업, 경공업부 장관 명령 No.A-129. 2018.7.27, 「산업화 21:100 국가 프로그램」을 2018-2021년에 실행할 계획]

[온라인 자료]

몽골 총리 방한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248702(2018.11.4.)

문 대통령이 놓는 러시아의 '9개의 다리'는?…"극동개발은 북핵 근원적 해법"
https://news.joins.com/article/21916583(2018.10.10)
한국광물자원공사, https://www.kores.or.kr/views/cms/hkor/bi/bi01/bi0101.jsp(2018.11.10)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s://stats.koreaexim.go.kr/odisas.html(2018. 11. 03)
한국·몽골, '신북방정책' 등 경제협력 방안 논의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0&key=20180116.99099006909(2018.11.4)
한국 자원정보서비스 수출입통계
https://www.kores.net/komis/reference/trade/tradeassort/tradeassort/tradeStatByMc.do(2018.11.9)
KIAT, 몽골 '친환경에너지타운' 착공…"신북방 정책 이행"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913000439(2018.11.7)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https://www.imf.org/external/pubs/ft/weo/2018/02/weodata/index.aspx(2018.10.18.)
Solongo, P(2018), Current status and future development of dry ports in mongolia.
https://www.unescap.org/sites/default/files/6.%20%20Mongolia%20resource%20person%20presentation.pdf(2018.10.15)
БНХАУ−аас Монгол улсад суугаа элчин сайдын яам[주몽골 중국 대사관],
http://mn.china−embassy.org/mn//zmgx/t1523570.htm(2018.10.15.)
Зам тээврийн хөгжлийн яам[도로교통개발부],
tttp://mrtd.gov.mn/single/55/item/1490(2018.11.4)
Ерөнхий сайд Ж.Эрдэнэбат ОХУ−д айлчлаад ямар асуудлуудыг шийдэв[에르덴바트 총리 방러시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나],
http://www.mglnews.mn/content/read/73311/Yerunhii−said−J.Erdenebat−OHU−−d−ajillaad−yamar−asuudluud−shiidev%3F.htm(2018.11.1)
Монгол банк[몽골은행, 외국인직접투자 통계 2010−2018],
https://www.mongolbank.mn/liststatistic.aspx?id=4_2(2018.10.10.)
Монгол банк[몽골은행(2018), 국가 외환보유고 통계 2006−2017],
https://www.mongolbank.mn/macrodb.aspx(2018.10.10.)
Монгол улсын Гаалийн ерөнхий газар. Статистик эмхэтгэл[몽골관세청. 통계자료],
http://www.customs.gov.mn/statistics/index.php?module=users&cmd=info_st(2018.10.22)
Монгол улсын засгийн газар[몽골정부], http://zasag.mn/news/view/21120(2018.10.24)
Монгол улсын ерөнхийлөгчийн тамгын газар[몽골 대통령실],
https://president.mn/5328/(2018.10.6)
Монгол улсын ерөнхийлөгчийн тамгын газар[몽골 대통령실],
https://president.mn/5254/(2018.10.17)
Монгол улсын үндэсний статистикийн хороо[몽골국통계청],
https://www.nso.mn/(2018.11.16.)
Монгол улсын үндэсний статистикийн хороо. Монгол Улсын нийгэм, эдийн засгийн байдал, 2018 оны эхний 9 сард[몽골국통계청, 몽골국 사회경제상황 2018년 9월 기준],
https://www.nso.mn/content/2051#.W9A6ymZRdok(2018.10.10.)
Монгол улсын үндэсний статистикийн хороо(2018),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 2017[몽골국통계청

(2018), 대외교역 2017], https://www.nso.mn/(2018.11.16.)
Монголын үндэсний худалдаа аж үйлдвэрийн танхим. Business Times сэтгүүл. №2018262[몽골상공회의소, *Business Times* №2018262], http://www.businesstimes.mn/a/325(2018.10.19.)
Өмнөд Солонгосын компани Монголд нарны цахилгаан станц барина[한국회사 몽골에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한다], http://www.sonin.mn/news/easy-page/65683(2018.11.1.)
"Тавантолгой төмөр зам" компани байгуулав[타반 톨고이 철도공사를 설립했다], http://montsame.mn/read/95218(2018.11.2)